

## 광양시-전남문화재단, 미디어아트 기반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연계...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기대

광양시는 지난 1월 19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문화재단과 미디어아트 기반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계기로 문화예술 창의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한 광양시와 전남문화재단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아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문화예술 및 미디어아트 진흥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협력 ▲미디어아트 창작·제작 및 콘텐츠 발굴 지원 ▲전남형 미디어아트 인재 발굴과 육성 기반 마련 ▲전시·행사·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홍보 및 교류 ▲기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게 된다. 페스티벌은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도심 및 구도심의 문화공

간과 야외 공간을 연계해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참여형 미디어아트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시민 체험 프로그램, 야간 콘텐츠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한 창작·교육·요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문화재단 역시 광양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남형 미디어아트 상생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 간 문화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광양이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예술 창의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전남문화재단의 풍부한 네트워크와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연계해 광양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의 대표적 미디어



아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확인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디어아트가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협력하는 출발점"이라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연계, 정책 지원을 통해 광양시가 전남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미디어아트 연계 전시, 창작지원 프로젝트,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과 창작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창작·교류 공간을 확장해 청년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 한국 서정시의 맥을 잇는 제23회 영랑시문학상 공모 시작 등단 10년 이상의 시인 대상, 시 정신 담은 시집 기다려

한국 서정시의 거목 영랑 김윤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영랑시문학상'이 올해로 23회를 맞아 공모에 들어간다.

이번 공모는 한국 서정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시대의 감성을 담아낸 우수한 시집을 발굴·시상하기 위한 것으로, 등단 10년 이상의 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모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시집으로, 동일 시집으로 타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 신청 마감일 기준 등단 10년 이상인 시인이거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신청자는 공모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한 뒤, 시집 4권을 동아일보사 영랑시문학상 사무국(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동아일보사 16층)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작 발표는 오는 3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신청서 양식은 동아일보 또는 강진군 시문학박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랑시문학상은 강진군이 주최하며 동아일보가 주관한다. 매년 한국 서정시의 흐름을 조망하고 우수한 시집을 발굴함으로써 시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석우 시문학박기념관장은 "영랑시문학상은 단순한 문학상이 아니라, 우리 시문학의 품격을 높이고 시대정신을 담은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깊은 울림을 지닌 많은 시집이 공모에 참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아일보(02-361-1416) 또는 강진군 시문학박기념관(061-430-3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 나주시,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보조금 공모 진행

### 2월 6일까지 관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대상 접수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주시가 2026년도 문화예술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민간 영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단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공연, 대회, 전시, 교육 등 5개 분야 문화예술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2년 이내 문화예술 분야 활동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개인이 아닌 단체 명의로 수행한 사업만 인정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없는 단체, 단순 친목 단체, 최근 2년 이내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체별로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 구성원의 60% 이상이 장애인 또는 청년(18-45세)으로 구성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단체소개서, 각종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2월 6일까지 나주시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심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차 서류심사와 단체별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서 사업 수행 역량과 실행 가능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시민 수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는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및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나주시 문화예술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의적인 활동이 시민 문화 향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선정된 보조금 사업은 시 주요 문화 행사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 광주동구합창단, 일본 고베 세계합창대회 금상

### 한국 민요로 올린 고베 하모니, 인문도시 위상 높여

광주 동구는 지난 15~18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세계합창대회 'SING FROM KOBE'(세계합창총연맹 주관)에 광주동구합창단이 참가해 민속음악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SING FROM KOBE'는 고베 대지진의 아픔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합창대회로, 6개 비경쟁 부문과 7개 경쟁 부문, 우정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50여 개 합창단, 2천여 명의 단원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연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동구합창단은 민속음악 부문에 출전

해 '아리랑', '두껍아, 두껍아', '홀로 아리랑' 등을 연주하며 한국의 전통 선율과 정서를 담은 무대를 선보였다. 깊이 있는 하모니와 완성도 높은 해석으로 심사위원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국제 무대에서 동구합창단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 받았다.

또한 동구합창단은 한국합창단 최초로 일본 교토 '귀부담'을 방문해 조문·참배를 진행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홀로 아리랑' 추모 공연을 펼쳐 남다른 울림과 감동을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광주 동구를 대표해 세계적인 합창대회에 출전해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동구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동구 주민과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6년 10월 창단한 광주동구합창단은 신동하 동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박병국 지휘자, 강대연 단무장, 조미연 반

주자와 48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정기연주회와 교류 음악회를 통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합창대회에 광주 동구 대표로 참가해 문화사절단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국민 내로남 다를 농어촌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